



2025년,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

어느덧 2025년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복지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생애주기별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이후 맞이한 첫 해로, 새로운 방향성 아래 내실을 다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스마트발달트레이닝센터 '시동트는 센터'가 문을 열어 시 기반 통합 발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고, 개관 이후 처음으로 동대문구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며 지역 안에서 우리 복지관의 역할을 되짚어보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또 개관 10

주년을 앞두고,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을 함께 되돌아보고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동구밖 나들이'를 통해 생애 처음으로 기차를 타본 분도 있었고, 동아쓰시오그룹과 함께한 '동고동락 나들이'에서는 8년 만에 첫 외출에 나선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쌓아온 실력을 뽐내는 희망UP음악회, 희망ON전시회, 찾아가는 전시회도 열렸지요.

이처럼 2025년의 시간들은

숫자만으로 담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열매'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들이 모여 올해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열매들이 다시 새로운 씨앗이 되어 다가올 내년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올해의 끝자락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2025년은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2025년

1년간의 노력, ‘희망’으로 피어나다

2025년 문화여가 프로그램 발표회 “희망ON 전시회 & 희망UP 음악회”

우리 복지관 문화여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년간 같고 닳은 실력을 나누는 뜻깊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전시와 공연으로 구성되어, ‘희망ON 전시회’와 ‘희망UP 음악회’로 진행되었는데요.

희망ON 전시회에서는 도기토끼, 킨더메이킹, 업사이클링 공예, 미술활동, 사진교실, 캘리미, 오동통대학, 캘리그래피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희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과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은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했습니다. 한 관람객은 “다양한 사람들의 예술작품을 볼 수 있어 좋았고, 예쁘게 전시된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희망UP 음악회에서는 ‘희망’을 전하는 노래와 연주 무대가

채워졌습니다. 청소년·성인 난타팀을 비롯해 국악, 가족자조모임, 다사랑합창단, 청소년·성인댄스팀까지 다양한 팀이 무대에 올라 열정 가득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복지관 종사자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던 기존의 음악회와 달리 올해는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가 사회자로 직접 참여했는데요. 특특 튀고 센스 있는 진행으로 음악회를 밝은 에너지로 채웠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각 무대 소개도 프로그램별 참여자 대표가 직접 나서 설명해, 공연을 준비하며 쌓아온 이야기와 설렘이 관객에게 더욱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참여자들의 성장과 도전, 그리고 희망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참여자들의 가능성이 더 큰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11월 28일 강당에서 열린 희망UP 음악회.



▲ 11월 24일~12월 5일 북카페에서 진행된 희망ON 전시회.



▲ 동대문구청 아트갤러리에서 참여자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주민.



▲ 전시회장에 방문한 참여자들.

노닐다, 동네를 걷다

2025년 찾아가는 전시회

우리 복지관 장노년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2025년 찾아가는 전시회 ‘노닐다, 동네를 걷다’가 ‘나, 그리고 삶’을 주제로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동대문구청 아트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미술활동, 사진교실, 캘리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장노년 작가들의 저마다 독특하고 고유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참여 작가들의 평균 나이는 약 67.5세.

지나온 시간도, 장애와 함께 살아온 시간도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동네에서,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라는 점입니다. 작품 속에는 작가

개개인이 바라본 세상과 살아오며 느낀 감정,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내 보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결과물을 감상하는 자리를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전시회를 통해 작가들은 나의 삶을 함께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눈높이를 맞춰보자는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1월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1월 1일부터 26일까지, 동안교회 로댐갤러리로 전시가 찾아갈 예정인데요. 아직 전시를 관람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방문하셔서 작가들이 전하는 삶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117cm에서 바라본 동네

2025 전국 무장애 지도 탐사 프로젝트

117cm.

휠체어 이용자의 평균 눈높이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걷는 거리와 공간도, 이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우리 복지관은 이 보행약자들의 시선에서 동네를 다시 살펴보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대문구 나들이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교보교육재단이 공모한 2025년 전국 무장애 지도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휠체어 이용자 3명과 비장애 청소년 4

명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서로 다른 이동 방식과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은 동대문구 곳곳을 직접 탐방하며 길의 높낮이, 턱과 경사, 화장실 접근성 등 실제 보행약자들의 시선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단순히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네 나들이를 목표로 탐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전통시장과 문화생활, 휴식 등 총 6개의 무장애 나들이 코스가 완성되었습니다. 각 코스에는



이동 편의성뿐 아니라, 동대문구에 숨어있는 명소와 즐길거리들이 녹아있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복지관 참여자들이 직접 발굴하고 정리한 무장애 나들이 코스는 교보교육재단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성인디지털문해교육 AI 대회

12월 9일, AI동트는 센터에서 '성인디지털문해교육 AI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성인디지털문해교육 참여자를 비롯해 지역사회 성인장애인 등 총 18명의 성인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참여자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활동을 위해 '인터랙티브 워밍업'으로 몸을 풀며 대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참여자들

은 4개 조로 나뉘어 다양한 종목에 참여했습니다. XR스크린에서는 VR 농구, 축구, 야구, 핸드볼, 사격 등 총 5가지 종목이 진행되었으며, 해피테이블에서는 그림 맞추기, 풍선 터뜨리기, 색깔판 뒤집기 등 3가지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웃음을 나누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2025년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지원 김치로 전하는 마음


우리 복지관은 2025년을 맞아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김장나눔을 통해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110가정에 정성껏 준비한 김장김치 5kg과 김장철에 빠질 수 없는 편육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번 김장지원은 한국철도공사 청량리 전동차승무사업소 사랑의기적

소리봉사회의 후원과 자원봉사로 더욱 뜻깊게 진행되었습니다. 봉사회에서는 받는 이의 식탁에 따뜻한 마음이 더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치와 편육을 정성껏 준비하고, 또 전달과정에도 함께했는데요.

이번 나눔이 작은 힘이 되어 전달받은 가정들이 보다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